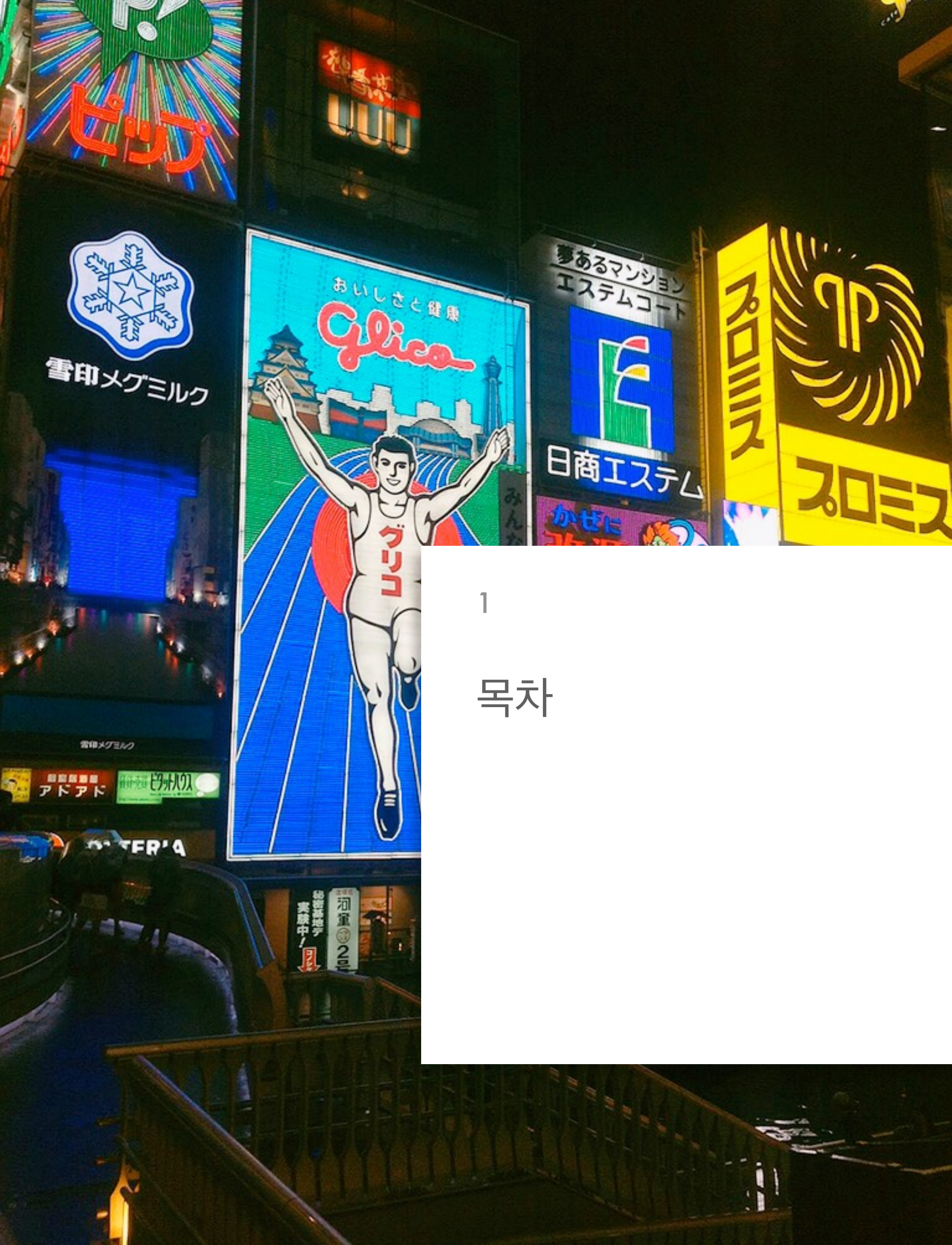




투어캐스트 E-BOOK OSAKA - 1

COPYRIGHT TOURCAST



1

목차

< 1편 목차 >

1장 목차

2장 항공/선박

- 항공예약 팁
- 선박예약 팁

3장 숙박

- 일행별 추천 호텔
- 커플 여행
- 나홀로 여행
- 나홀로 여행
- 가족여행(어린이동반)
- 가족여행(아기동반)
- 게스트하우스
- 전통료칸

4장 여행준비

- 여행자보험
- 데이터 로밍
- 일본에서의 쇼핑
- 렌터카 대여
- 동행서비스
-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
- 현지에서 문제 발생시

5장 일정 짜는법 & 교통패스

- 일정준비
- TourCast 영상
- 오사카 정석코스
- 일정 쉽게 짜는 법
- 교통패스

6장 정석코스 1일차

- 간사이 공항 도착
- 오사카 전철 타는 법
- 고베로 이동
- 고베 추천일정

< 2편 목차 >

1장 정석코스

- 교토
 - 교토 버스 노선 검색
 - 교토 1일 추천코스
 - 각 관광지 역사적인 배경
- 오사카
 - 주유패스 본전 뽑는 코스
 - 오사카 성의 역사
 - 백제와 시텐노지의 관계
- 유니버설
 - 익스프레스 티켓
 - 해리포터 예약권
- 나라
 - 나라 추천코스
 - 동대사 역사

- 일본이 육식을 1100년 동안 하지 않은 이유

2장

- 정석코스 이외의 일정 짜는 방법
 - 오후출발/오전리턴 일정
 - 오전출발/오전리턴 일정
 - 한큐 패스 vs 게이한 패스
 - 교토에서 바로 공항가는 방법

투어캐스트 오사카 2편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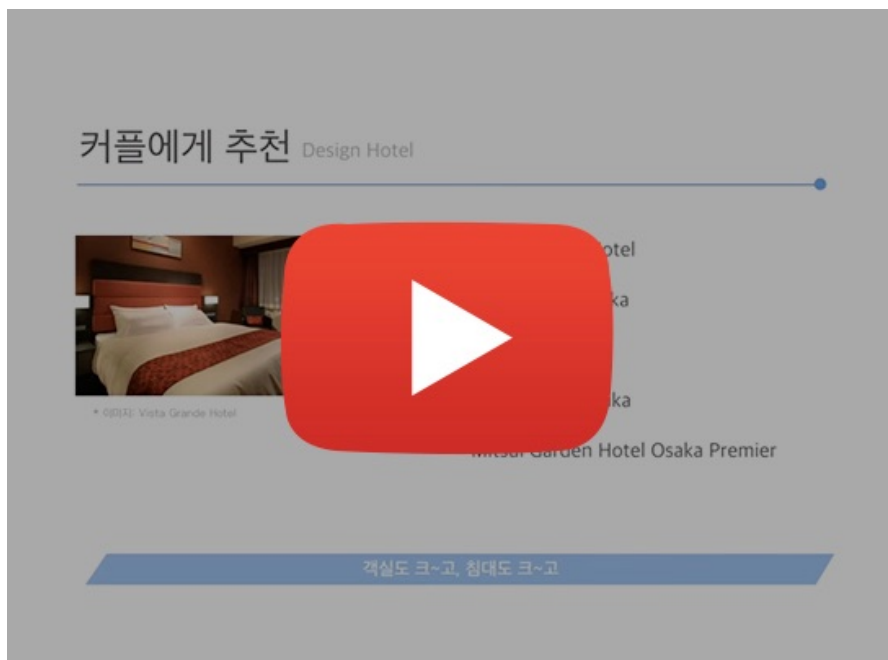
항공 / 선박



투어캐스트 영상

항공(선박), 숙소 내용을 정리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유튜브로 이동합니다.





항공권 준비

오사카를 가는 경우에는 현재 인천, 김포, 김해, 대구공항에 출발편이 있으며,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입국 가능하다.

간사이 공항으로 가는 항공사는 국적 저가항공(LCC : Low Cost Carrier)인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티웨이, 에어부산이 운항 중이며, 일본 국적의 저가 항공인 피치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형 항공사(FSC : Full

Service Carrier)로는 국적기인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운항 중에 있다.

저가 항공은 기내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그만큼 항공료 부담을 여행객에게 줄여주며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다. 때문에 기내식, 기내 담요 등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탑승을 해야한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특가요금을 접할 때가 많은데, 프로모션 항공권의 경우, 취소나 변경 시 수수료가 높거나 환불이 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구매에 주의해야 된다. 또한 저가항공은 대부분 마일리지 제도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마일리지 적립을 챙기는 여행객들은 이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에 반면 **대형 항공사**는 마일리지, 기내식, 담요 등이 기본 제공되며 개별 항공권 구매 시에는 사전 좌석 지정도 가능해 서비스 차지라는 명목으로 저가항공보다 항공권이 다소 비싸다. 그러나 저가항공보다 비행편이 많아 보다 다양한 시간대의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얼리버드(Early bird) 등의 특가할인 기간에 예약하면 좋으나 조건을 보지 않고 구매를 했다면 일정 취소 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경

우도 있으니 반드시 발권기한, 일정 변경 수수료, 취소 시 환급 수수료 등을 확인 후 구매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특히 연휴 기간은 좌석 확보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는 사전에 항공사와 협의 후 항공권을 미리 구매 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만약 좌석 확보가 힘든 경우 여행사에 문의를 하는게 좋다.

여행사에서 미리 확보한 좌석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명 ‘땡처리’라는 명목으로 초특가 상품이 종종 나오기도 하나 출발 3~4일 전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다소 이용이 힘들 수도 있다.

3줄 요약

1. 특가 항공권일수록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2. 항공권 구매 시에는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자.
3. 저가항공과 대형 항공사의 항공료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선박권 준비

배를 타고 오사카를 갈 경우에는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팬스타 페리**가 있다. 매주 일, 화, 목요일 15:00에 출발하여 다음날 10:00 오사카 항에 도착한다. 오사카 항에서 출발하는 팬스타 페리는 매주 월, 수요일 15:00 출발, 다음날 10:00 부산 도착 편과 금요일은 17:00 출발하여 다음날 12:00, 부산에 도착한다.

팬스타 같은 경우 4박 5일 일정일 경우에는 선박 내에서 출국할 때 1박, 귀국할 때 1박은 선내에서 숙박하여 현지에서 2박을 하는 일정이며, 항공권보다 저렴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다.

또한, 다른 일본행 페리와 달리 스탠다드 다인실 같은 경우 남녀실 별도 운행을 하다 보니 연인이 가는 경우에는 선실을 따로 이용해야 하며, 같은 선실을 사용하고자 하면 추가 비용을 내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선내에는 면세점, 노래방,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과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가 가능한 레스토랑, 카페, 바다가 보이는 목욕탕의 부대시설과 공연장이 있어 선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루하지는 않을 것이다.

팬스타 여행의 묘미는 바다에서 보는 부산의 야경, 세토내해를 지나며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관문대교, 세토대교를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아카시 해협대교를 선상 위에서 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일 것이다.

[팬스타 페리 홈페이지](#)



3

숙소



호텔 최저가 예약 꿀팁

항공권(숙박권) 예약을 끝냈으면 그 다음은 숙소 예약을 해야한다. 이 때 가장 궁금한건 어떻게 예약을 해야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예약을 하는게 아닐까 생각이 된다.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는 여행사에 서만 의존하던 해외여행 예약을 온라인이 발달 됨에 따라 해외 OTA (Online Travel Agency)업체와 비교가 가능해 짐에 따라 여행객의 입장에

서는 좀 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이에 호텔 예약할 경우 최저가 객실을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 최저가 호텔 예약 꿀팁

1. 해외, 국내 OTA 호텔 업체의 요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호텔스컴바인’ 에서 체크인/아웃 날짜 입력 후 조회

[호텔스컴바인 오사카 지역 호텔 검색](#)

2. 검색된 결과는 세금 불포함된 요금이므로 조회된 요금을 클릭하여 세금 포함요금과 예약조건 및 포함 내역을 확인한다.

- 특히 해외 OTA업체에서는 취소, 변경, 환불 불가 조건으로 저렴한 조건이 많으니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3. 한국 여행사 또는 OTA 업체에서 같은 조건의 요금을 비교 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예약을 한다.

- 한국 OTA 업체는 대부분의 객실이 출발일 7일전 까지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므로 해외 OTA과 이런 점을 비교해서 예약 진행을 한다.

• 해외 OTA 할인코드 적용

앞서 호텔스컴바인에서 조회한 요금 중 가장 좋은 요금이 아래 해외 OTA 업체 중 한 곳이라면 할인코드 적용으로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래 해당 업체 이미지를 클릭해 할인코드 적용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할인코드로 좀 더 저렴하게 예약하자.



• 오사카에서의 호텔 위치는?

오사카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면 번화가인 남바역 주변과 교통의 중심지 우메다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남바역과 우메다 역은 미도스지선으로 8분거리로 먼거리는 아니지만 교토, 고베를 가기에는 남바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 이 쪽 중심으로 여행을 한다면 우메다가 조금 더 낫고, 밤에 남바 또는 신사이바시에서 술한잔을 하거나 아메리카 무라 쪽의 클럽을 갈 생각이라면 남바 쪽이 낫다.

이 외의 지역의 숙소라면 가까운 역이 JR선인지 사철역인지를 확인하고, 오사카 주유패스로 시내 관광을 할 생각이라면 오사카 주유패스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오사카 주유패스 1, 2일권은 이동구간이 다르니 주의)

• 오사카에서만 숙소 예약?

오사카 여행 가는 경우 대부분은 오사카 시내만 여행하지 않고, 교토, 고베, 나라를 기본으로, 더 크게는 히메지, 와카야마 등의 관서(關西) 지방을 여행 다닐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가는 여행객이라면 ‘호텔을 옮기며 여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사카를 중심으로 간사이 공항, 교토, 고베, 나라가 편도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료칸에서 숙박을 한다거나, 교토에서 2~3박을 하며 교토 위주로 여행을 다닐 예정이 아닌 여행객이라면 오사카 시내에 숙박을 하며 다른 지역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하는 걸 추천한다.

• 비즈니스 호텔? 세미더블룸?

일본 여행상품 또는 호텔 예약 시 ‘**비즈니스급 호텔**’ 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비즈니스 호텔은 일본 샐러리맨들이 출장을 가서 저렴하게 묵는 호텔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 생각하면 된다. 더불어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룸타입이 있는데 바로 ‘**세미 더블룸**’이다. 세미 더블룸은 싱글룸 객실을 두 명이 숙박할 수 있게 한 객실로 일반 더블룸의 침대보다 폭(약 120~140cm)이 작은 편이고 우리나라 슈퍼싱글 침대 사이즈 정도된다. 여자 두 명이라면 별 무

리 없이 잘 수 있지만 남자 두 명이라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야 하므로 잘 때 예민한 분들은 트윈룸을 추천한다.

• **일행별 추천호텔**

투어캐스트에서는 다른 가이북과 달리 같이 가는 일행에 따라 호텔을 추천하며 특히, 자녀들과 같이 여행을 가는 경우는 동반투숙이 가능한 호텔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추천 호텔에서의 ‘최저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호텔만 지정이 되어 최저가 요금 확인이 가능하니 편리하다.



이미지 : <http://www.hno.co.jp>

커플여행

연인과의 여행...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여행!! 특별한 여행이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디자인 호텔**을 추천한다. 이런 디자인 호텔은 비즈니스급 호텔보다 객실도 크고 침대도 넓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하지만 비즈니스급 호텔보다 가격대가 있어,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뒤에 나오는 ‘나홀로 여행 시 추천호텔’ 편을 참고 하는 게 좋다.

• 비스타 그란데 오사카 (Vista Grande Osaka)

도톤보리에 위치하며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커플에게 가장 추천하는 호텔이며, 객실도 6평 정도로 작지 않으며, 퀸사이즈 베드(160*200)로 편하게 숙박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vistagrande.jp/kr/guestroom/>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크로스 오사카 (Corss Osaka)

도톤보리에 위치하며 흰색 계열의 객실에 빨간색 포인트로 스타일리쉬한 객실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부티크 호텔로 젊은 커플이 선호한다.



이미지 출처 : <http://www.crosshotel.com/osaka/guest/double.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렘 신오사카 (Remm Shin Osaka)

2012년 9월에 오픈한 호텔로 오사카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큰 창이 있고, 객실마다 피로를 풀어줄 마사지 체어, 숙면을 보장하는 자체 제작 침대와 레인 샤워기가 갖춰져 있는 깔끔한 분위기의 디자인 호텔이다.



이미지 : <http://www.remm.jp/shinosaka/rooms/>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미츠이 가든 오사카 프리미어 (Mitsui Garden Hotel Osaka Premier)**

바닥이 카펫이 아닌 원목 마루를 이용해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숙박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대욕장이 있어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다.



이미지 :

<http://www.gardenhotels.co.jp/osaka-premier/room/room-superior-double/>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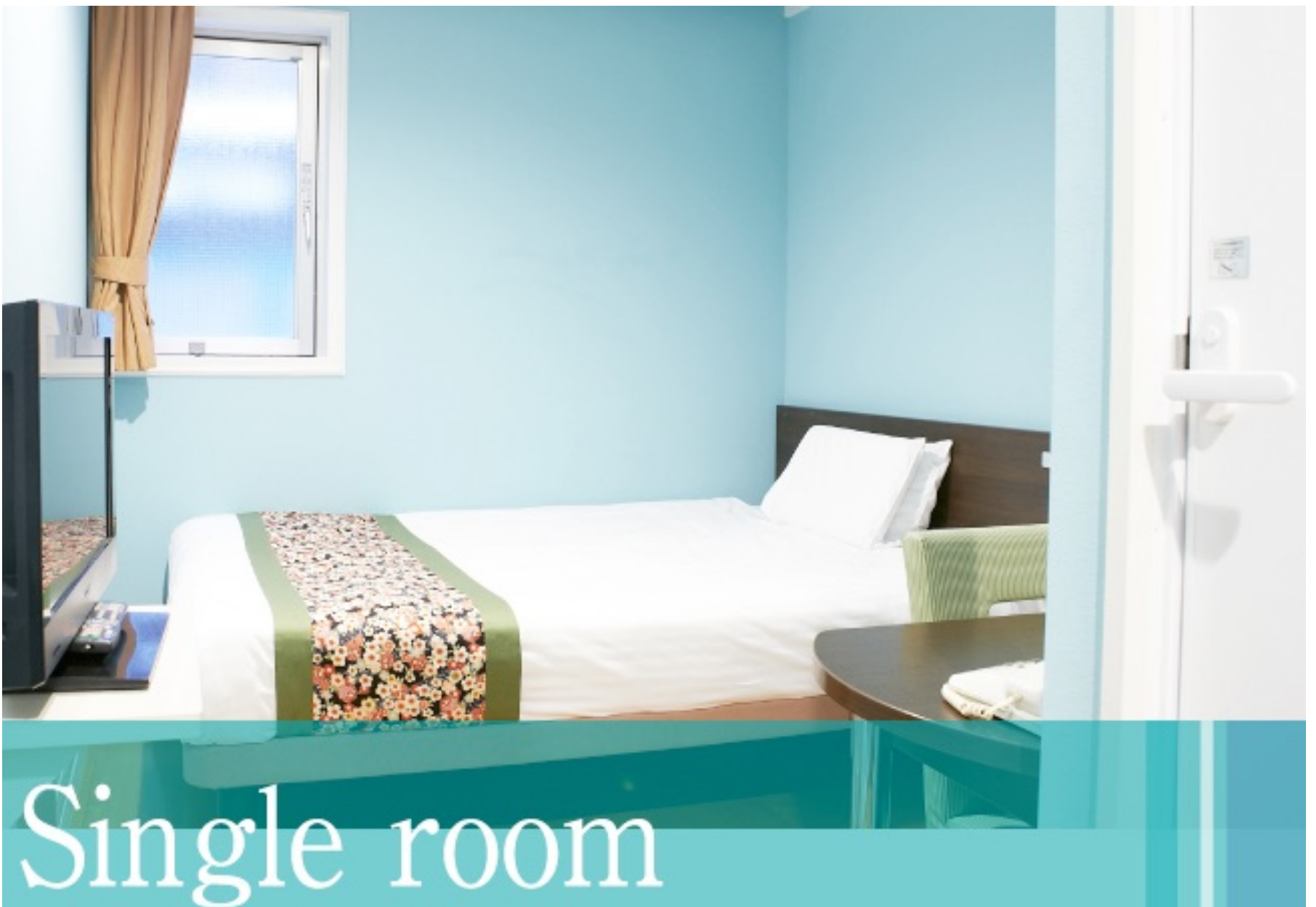
나홀로 여행

혼자 여행갈 경우에는 객실을 혼자 쓰기 때문에 경비가 다소 부담될 수 있으므로 시설 및 위치가 혼자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비즈니스급 호텔**을 추천한다.

비즈니스급 호텔도 싱글룸이면 1박당 1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게스트 하우스 다인실을 이용하며 현지에서 여행친구도 사귄 수 있다.

- **도톤보리 호텔 (Dotonbori Hotel)**

도톤보리에 있고 노트북,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주며, 객실에서 wi-fi가 무료로 제공되어 혼자 여행 시에 가장 추천하는 호텔이다.



이미지 : <http://dotonbori-h.co.jp/room/index.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네스트 신사이바시 (Nest Shinsaibashi)

네스트 신사이바시 이름보다는 구, 치산 신사이바시 이름이 더 익숙한 호텔로 신사이바시 역이나 도톤보리까지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텔 바로 앞이 나가호리바시 역이라 지하철 이동시에도 용이하다.



이미지 : <http://www.nesthotel.co.jp/osakashinsaibashi/rooms/>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오사카 후지야 호텔 (Osaka Fujiya Hotel)

100년의 전통을 가진 후지야 체인 호텔로 2014년 3월 리뉴얼을 했으며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 상점가가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한국어 전용 데스크가 있어 체크인, 수하물 등의 보관이 쉬우며, 객실에서 KBS 방송을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



이미지 : <http://www.osakafujiya.jp/rooms/>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아로우 호텔 (Arrow Hotel)

난바 역과 신사이바시 역 중간 지점에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다이마루 백화점, Apple Shop이 있어 쇼핑하기 좋으며 저렴한 가격대로 혼자 이용하기에 큰 부담이 없어 많이 찾는 호텔이다.



이미지 : <http://arrow-hotel.com/charge/>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이미지 : <http://www.hno.co.jp>

가족여행 (어린이 동반)

비즈니스급 호텔은 아무래도 객실이 작다 보니 동반투숙이 불가능한 곳이 많아 이런 곳에 자녀랑 같이 가면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 추천 호텔들은 만 12세 미만 자녀 2명까지 동반투숙이 가능해 트윈룸 한 개 예약만으로 자녀들과 같이 숙박이 가능하며, 객실 2개 예약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숙박이 가능하다.

• 스위소텔 난카이 오사카 (Swissotel Nankai Osaka)

난바 역과 직결된 특급 호텔로 공항에서의 이동이 쉬울 뿐만 아니라 고베, 나라, 교토를 갈 때도 쉬우며, 객실에서 보는 오사카 시내의 야경은 일품이다.



이미지 : <http://www.swissotel-osaka.co.jp/room/premier.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힐튼 오사카 (Hilton Osaka)

2014년 7월 전 객실 리뉴얼이 되었으며, 우메다 역에 위치하며 간사이 공항에서 리무진을 타고 이동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주위에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한신 백화점, 한큐 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몰이 많이 있어 쇼핑하기에도 편리하다.



이미지 : <http://hilton.co.kr/hotel/osaka/hilton-osaka#category-1>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비스타 그란데 오사카 (Vista Grande Osaka)

연인들이 가기에 좋은 호텔로 추천한 호텔이며, 트윈룸 이용 시에는 자녀들과 동반투숙이 가능하기도 하며 도톤보리 위주로 여행하는 여행객에게 적극 추천한다.



이미지 : <http://www.vistagrande.jp/kr/guestroom/>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도톤보리 호텔 (Dotonbori Hotel)

2014년 전 객실 리뉴얼한 호텔로 동반투숙이 가능한 추천 호텔 중 가장 저렴하며 도톤보리에 있어 자녀들과 같이 시내 관광하기 적합하다. 또한, 무료로 노트북, 자전거를 무료 대여가 가능하며, 국제전화가 5분간 무료통화도 가능하다.



이미지 : <http://dotonbori-h.co.jp/room/index.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호텔 닛코 오사카 (Hotel Nikko Osaka)

오사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인 미도스지선 구간의 신사이바시 역과 직결되어 있으며 난바 역에서 한 정거장으로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다. 객실이 10층에서 30층까지 배치되어 있어 오사카 시내 야경을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호텔이다.



이미지 : <http://www.hno.co.jp/stay/newsuperior/twin.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난바 오리엔탈 호텔 (Namba Oriental Hotel)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호텔 중 하나로 간사이 공항에서 시내로 연결된 난카이 난바 역하고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도톤보리와의 접근성도 좋다. 또한, 건물 안쪽에 분수대가 있어 색다른 모습을 자아낸다.



이미지 : <http://www.nambaorientalhotel.co.jp/stay/floor/oq-twin.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 몬트레이 그래스미어 호텔 (Monterey Grasmere Osaka)

2009년 7월에 오픈한 호텔로 로비와 프론트가 22층에 위치하며 대부분 객실이 고층에 있으며 모던한 유럽풍의 디자인 객실로 인기가 많다.



이미지 : http://www.hotelmonterey.co.jp/grasmere_osaka/stay/room/95.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http://osaka.frasershospitality.com>

가족여행 (아 기 동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챙겨가야 할 짐도 많을 것이다. 객실에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이 있어 간단한 조리가 가능하며 전자레인지가 있어 젓병 소독 등도 쉽게 할 수 있어 **레지던스**를 추천한다.

물론 이보다 저렴하게 갈 경우에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다.

• 프레이저 레지던스 난카이 오사카 (Fraser Residence Nankai Osaka)

난카이 남바 역과 근접하고 있어 공항과의 이동이 쉬우며, 객실마다 조리기구와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이 있어 아기와 같이 숙박하기에 적합하다.



이미지 :

<http://osaka.frasershospitality.com/ja/accommodation/one-bedroom-apartments.html>

최저가 확인

홈페이지

구글맵



게스트 하우스

성별 구분 없이 같은 일행이 2명 또는 6명까지 같은 객실을 쓰고 싶을 경우 **게스트 하우스**를 추천하며, 혼자 갈 경우에는 남녀구분된 다인실(도미토리)에서 숙박을 한다. 게스트 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호텔보다 저렴하며, 한국인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성인, 어린이 구분없이 요금이 동일하며, 개인용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전통 료칸

일본여행 묘미 중의 하나가 료칸 여행이 아닐까?

오사카에서 일본식 코스요리인 가이세키 요리와 온천을 할 수 있는 전통 료칸은 고베 넘어 있는 아리마 온천지역, 교토의 아라시야마가 있으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교토 쿠라마 온천지역과 오고토 온천이 있다. 이런 료칸여행은 일본 여행시 빠지면 아쉬움이 남는 여행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전통 료

칸은 체크인 당일의 저녁식사의 가이세키 요리와 다음날 일본 정식의 아침식사, 그리고 객실마다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나카이상의 서비스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격대가 1인 1박당 20 ~ 6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으나 다소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다.

만약 일정 중에 료칸 숙박을 할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 료칸에서 숙박을 할 예정이라면 아래 내용은 꼭! 확인 후 예약을 진행하도록 하자.

• 지역별 최저가 료칸 확인

- [아리마 온천 지역](#)
- [교토 아라시야마 지역](#)
- [교토 쿠라마 지역](#)
- [오고토 온천 지역](#)

• 료칸 예약시 확인할 사항

1. 객실의 온천탕 유무

- 료칸은 객실에 온천탕이 딸려 있는지와 아닌지에 따라 가격이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나며, 그 온천탕이 실내탕인지 노천탕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다다미방, 침대방 구분

- 다다미 1조(帖)는 약 180cm x 90cm이며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한명 눕고 조금 남은 정도의 크기를 말하며, 이런 다다미 방이 깔린 객실을 화실(和室)라고 한다.
- 이에 반면 침대가 있는 객실을 양실(洋室)이라 하며, 침대와 다다미가 같이 있는 객실을 화양실(和洋室)이라 하므로 원하는 객실을 예약요청한다.

3. 식사는 어디서?

- 일본 드라마에서 온천을 하고 분위기내며 가이세키 요리를 방에서 먹는걸 보고 따라 하고 싶어 전통료칸을 예약하고 갔는데 식사를 방에서 하는게 아니라 별도의 식사처에서 한다면 실망스러운 여행이 될 것이다.



- 료칸과 이용 객실에 따라 식사 하는 곳이 다르니 일본 드라마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객실에서 식사가 가능한 료칸이 통상적으로 가격대가 더 비싼 편이다.)

4. 저녁식사(가이세키)가 가능한 시간 확인

- 료칸은 보통 5시 전후로 체크인을 해서 차와 간단한 다과를 먹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저녁식사 시간을 나카이 상에게 요청하는게 통상적이다.

- 늦어도 6시 전에는 체크인하는게 좋으며, 7시가 넘으면 가이세키 요리가 제공이 안 될 수 있으니 료칸 숙박하는 날에는 조금 여유로운 일정을 짜는게 좋다.

5. 차량 송영 서비스 유무 및 송영 가능 시간 확인

- 대부분의 료칸은 편안한 휴식을 위해 역이나 버스 정류장과 다소 거리가 있는 곳에 많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료칸은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송영 차량 유무와 송영 가능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게 좋다.

6. 특별요리 추가시 별도 요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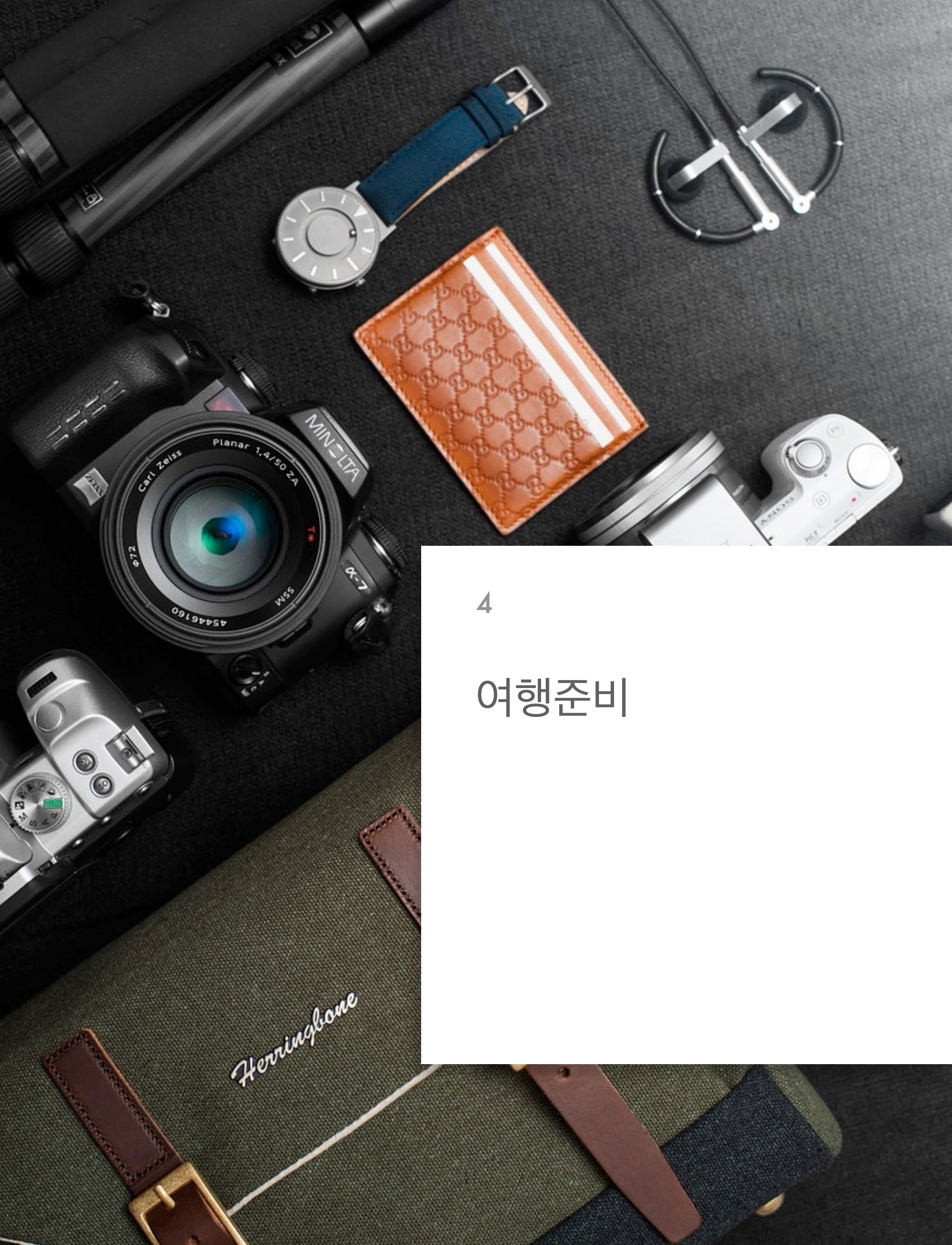
- 료칸의 식사는 그 지역의 특산물과 제철 음식으로 주로 만들어 제공을 하나, 혹시 못 먹는 음식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알리면 그 음식을 제외한 식사를 제공 받는다.
- 또, 기본적인 식사 이 외에 원하는 요리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추가 지불로 특별요리 추가도 가능하다.

7. 가족탕 유무 및 예약방법

- 온천탕이 없는 객실을 이용할 경우 일행들만 이용 가능한 가족탕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료칸이 다 가족탕이 있는게 아니므로 사전에 가족탕의 유무와 예약방법 및 이용시간, 요금은 미리 확인하는게 좋다.

8. 온천세 포함여부

- 온천이 있는 료칸이라면 의무적으로 온천세 (1인 ¥150) 를 부과를 해야 하며, 예약할 때 포함이 되는 경우와 현지에서 내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만약 이 부분을 모르고 갔다가 기분 좋게 체크아웃 하려다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에 되려 기분이 상할 수 있다.



4

여행준비



여행자보험

항공, 호텔 예약은 고민해서 예약하는 반면, 여행자보험은 ‘꼭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귀국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르기에 그런 관점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은 여행 준비 중 다른 사항들 보다 더 중요 할 수 있다.

우리가 평상 시 만약을 위해 실손 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여행자보험도 우리가 여행을 할 동안 예상치 못하게 발생 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행자보험의 대표적인 보장항목은 아래와 같다.

- 상해 : 여행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골절, 화상 등)
- 질병 : 여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감기, 장염 등)
- 휴대품 : 여행 중 카메라, 핸드폰 등이 파손/침수 되어 수리비용이 발생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배상책임 : 여행 중 객실 내 기물 파손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사망 :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외에도 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여행사고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이제 **여행**

자보험은 제 2의 여권이라고도 불리며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여행자보험은 보장 내용별로 플랜이 다양하여 가입 시 보장내용과 보장한도 등 가입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보장한도가 클 수록 일어날 사고에 대해 확실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여러 플랜 중 최대 1억원(사망 시)까지 보장되는 상품으로 2박 3일 기준 약 4~5천원 선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더구나 해외에선 의료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청구되는데 국내실비 중에 해외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상품이 대부분이므로 ‘나는 아닐거야~’ 하고 몇 천원 아끼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해외여행시 필수인 여행자보험은 가능하면 여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언제든지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는게 좋다.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당황 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본여행 중 발생한 사고사례

- 질병 : 아이가 여행중 발열이 시작되어 현지병원에서 중이염, 편도염 등을 진단받아 해열제와 링거 처방 (175,792원 발생했지만 본인 부담금 0원)
- 파손 : 여행 중 핸드폰 파손되어 액정 전면 교체 (휴대품 파손에 대한 보험금 20만원 한도)
- 도난 : 캠코더 가방을 바닥에 두고 쉬고 있는데 도난 당함 (휴대품 도난에 대한 보험금 지급 613,377원)
- 상해 : 놀이동산에서 줄을 빨리 설려고 뛰다가 발목인대에 무리감 (현지병원 치료비 129,571원 지급)
- 위와 같은 상황 이 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바로 연락을 취해 처리하는게 좋다.

• 여행자보험 20%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하기

투어캐스트는 여행자 가입 회사인 '[트래블로버](#)' 에 투어캐스트에서 자체 제작한 가이드북을 제공함으로써 아무런 조건 없이 20% 할인 적용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 모바일로도 바로 여행자보험 가입가능하며, 24시간 콜센터 운영중에 있어 현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즉시 연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가입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가입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20% 할인 가입

투어캐스트는 여행객 모두의
무사 귀국을 기원 합니다!



데이터 로밍

스마트폰이 생활화 되면서 해외여행 갈 때도 필수품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 데이터 로밍 또한 여행가기 전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만약 데이터 로밍 신청이나 포켓 와이파이 등을 신청하지 않고 가서 무심코 데이터를 썼다가는 여행 경비보다 오히려 더 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데이터 로밍의 각각의 장점을 알아보자.

• 통신사 데이터 로밍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별도 해외 데이터 로밍을 신청하지 않고, 자동 로밍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요금 폭탄을 맞게 되니 이 점은 꼭!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출발 전 반드시 해당 통신사 114에 전화를 걸어 신청을 하거나, 각 통신사 홈페이지 또는 해당 어플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하지만 요금이 1일 1만원 정도로 저렴하지 않은 편이며 혼자만 사용이 가능해 일행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므로 경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 휴대폰 번호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 혼자 업무차 출장 가시는 분들께 추천 한다.

투어캐스트 Tip

만약 해외여행시 요금 폭탄을 맞을까 염려스럽다면 ‘해외 데이터 무조건 차단’을 각 통신사에 신청을 하고 가는게 좋다.

• 해외 유심칩

일주일 이상 장기간 여행 갈 경우에는 그 나라의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는게 좀 더 저렴하다. 일본의 경우 8일 동안 사

용할 수 있는 약 2만원 정도로 8일 여행시 1일 2,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유심칩을 빼고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므로 한국에서 오는 전화는 수신이 불가능하고, 또한 일행들과 같이 이용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혼자 장기간 여행가는 경우 추천! (슬롯을 열기 위한 핀셋 같은 도구는 미리 챙기자)

• 포켓 와이파이

조그만 포켓 와이파이 기기(에그)를 가지고 다니며 일행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해외 여행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충전을 해야 하는 점이 번거로울 수 있으나,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하다. (단, 5핀 전용 케이블로만 충전 가능)

일본의 경우 1일 6,100원으로(10%할인된 금액) 최대 10명까지 동시 사용 가능하므로 친구들 또는 가족여행시 유용하다 볼 수 있다.

[관련 동영상](#) / [웹툰](#)

10% 할인 신청



일본에서의 쇼핑

일본의 상품 또는 식당 메뉴판의 가격은 소비세 8%가 별도이므로 계산을 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이를 모르고 품목에 표시된 금액만 가지고 있다면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소비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쇼핑을 할 수 있다.

• Tax Free & Tax Refund 확인

일본 모든 매장이나 쇼핑몰이 소비세를 다 면세되는건 아닙니다. Tax Free 또는 Tax Refund 라고 적힌 매장에 한 해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확인이 잘 안되면 텍스프리(후리)데스까? 라고 물어보는게 좋다.

• 여권은 필수!

소비세 면세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상대로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여권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여권이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여권은 쇼핑할 때 반드시 지참을 해야 한다.

여권을 소매치기와 분실 우려로 호텔 객실내 금고에 잘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은 소매치기가 거의 없으며, 간혹 여권을 호텔 금고에 그대로 두고 공항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가능하면 항상 지참하는게 좋다.

• 한 곳에서 구매

한 매장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 구매 시 소비세 면세가 가능하다. 일본은 판매자의 의해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특이

한 방식으로 한 동네의 같은 드럭스토어이지만 같은 품목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저렴한 곳을 찾아 구매를 하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고 따로따로 구매 시 소비세 면세가 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한 곳에서 구매하는게 좋다.

- **소모품과 일반품은 따로 계산**

소모품은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5,001엔 이상 구입 시(세금별도), 일반품은 가전, 장식품, 시계, 의류, 구두, 잡화 등으로 10,001엔 이상 구입 시(세금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모품과 일반품을 합산 금액에서 면세가 되지 않는다. 아래 예를 통해 알아보자.

- 소모품 2000엔 + 일반품 4000엔 = 6000엔인 경우 면세 불가
- 소모품 6000엔 + 일반품 5000엔 = 총 11,000엔 구입을 하지만 소모품 6000엔 해당되는 소비세만 면세

• 쇼핑 후 주의사항

- 매장에 따라 Tax Free 카운터가 없고, 소비세 포함된 금액을 계산 후 별도의 Tax Refund 카운터에서 다시 환불 받는 경우도 있다.
- 면세 봉투에 포장된 물품을 입국할 때까지 뜯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뜯어 사용했다면 출입국시 소비세가 과금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사용할 품목은 소비세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계산해야 한다.
- 소비세 환급 시에는 여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그러므로 입국시 구입 물품이 확인되므로, 600불 이상 구매시 자진 신고한다.

• 면세한도 초과 세금 계산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600불(USD)이다.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쇼핑을 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럼 예를 통해 알아보자. (환율은 1달러 = 100엔 = 1000원이라고 가정)

일본에서 가방을 10만엔에 주고 샀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으로 면세한도 60만원을 40만원 초과한 셈이다. 그럼 초과한 40만원 X 간이세율 20% = 80,000원이 면세한도 초과 세금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진신고를 하면 80,000원의 30%할인이 되어 56,000원(최대 15만원까지)을 부과를 하면 되지만, 만약 꼼수를 부려 신고미이행시 과심죄 적용으로 80,000원에 가산세 40%의 32,000원을 더해 총 112,000원을 내야 한다. (2년 이내 2회 불이행시 가산세 40% → 60%로 인상)

하지만 이런 세율은 물품마다 상이하므로(특히 비싼 품목일 수록 개별소비세 추가)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바로가기\)’](#)을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조회시 주의할 점은 총 구입금액에 넣는 금액은 실제 구입한 금액 - 면세 한도 600불을 넣어야 한다. (자진 신고 시 조회된 금액의 30% 할인, 안하고 걸리면 40% 가산)

- **면세 한도 초과 관련주의사항**

- 면세혜택은 개인 기준이며, 같이간 가족이나 일행과 합산은 불가하다.
- 영수증은 반드시 챙긴다. (650불 물건을 600불에 구매를 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 Tax 면세 받았을 경우 실제 결제한 금액에서 면세 한도 600불을 제하고 계산한다.

자진 신고 이행으로 30% 할인도 받고, 뷰티풀 코리안 (Beautiful Korean)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 보태기 :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일본 정부는 지문을 이용해 면세와 결제가 한 번에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



렌터카 대여

아리마온천, 롯데산 등은 거리가 멀어 이동거리가 만만치가 않다. 또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라 일행들 특히 부모님 또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가족여행이라면 교통패스의 비용 뿐만 아니라 버스나 열차 시간에 맞춰 이동을 해야 하므로 이동에 제약이 발생이 된다.

이럴 경우 도심 이 외 지역 여행시에는 차량을 렌터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며 가격도 우리나라 렌터 비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핸들로 좌측 차로로 운전을 해야하므로 처음 2~3시간은 적응 시간이 필요하며, 일본만의 교통신호만 잘 준수한다면 크게 어려운건 아니다. 만약 렌터카를 대여할 생각이라면 미리 국제면허증은 신청을 해 두자.

• 차량 렌트시

- 렌터카 직원과 차량 확인 : 차에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반납할 때 미처 확인하지 못한 흠집이 있는 경우 본인 책임
- 가득채운 주유 :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빌리고 그 상태로 반납을 하는게 원칙이나, 만약 주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납 시에는 남은 기름과 운전 거리에 따라 렌터카 회사에서 정산을 한다.(주유 후 영수증은 반드시 지참)
- 렌터카에 자신들만의 닉네임을 붙여준다. (ex. 문동이 등)
- 기어는 왼속, 방향지시등은 오른속으로 조작을 하며, 브레이크와





엑셀 위치는 동일하다.

• 운전시 주의사항

1. 좌측통행 (왼쪽주행)

- 일본에서 운전은 좌측 통행이 원칙
- 주행자선이 2차선인데 우측 차선에 우회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회전 할 예정이 없으면 좌측 차선으로 주행

2. 도로 위 우선 순위

- ①보행자 ②직진, 좌회전 차량 ③우회전 차량 순이다.

3. 비보호 우회전 (특히 주의)

- 일본은 우회전이 비보호이며, 파란불 신호에서 직진, 좌회전 차량이 없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
- 만약 우회전 신호가 있는 신호등에서는 우회전 신호 시에만 이동

4. 빨간색 신호는 무조건 정지!

- 우리나라에서는 빨간색 신호에도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빨간색 신호라면 좌회전, 우회전 모두 정지를 해야한다.
- 하지만 빨간색 신호 밑에 파란색 화살표 방향의 차선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다.
- 요약 : 빨간색은 무조건 Stop! 파란색은 Go!

5. とまれ (토마레) : 일시정지

-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후를 살피고 출발해야함

- 경찰이 없어도 준수해야하며 벌금이 6000엔 이상
- 빨간색 표시가 바로 일시정지 표시이며, 골목에는 흰색으로 써져 있기도 하다.

6. 제한 속도

- 시가지 30~50km / 교외, 간선도로 60km / 고속도로 통상 100km
- 카메라가 없어도 반드시 지켜야하며, 과속하다가 어느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경찰차가 따라 붙을 수 있음
- 벌금 15000엔 이상

7. 추월주의

- 추월 금지선인 노란색 실선 중앙선은 절대 추월해선 안된다.
- 추월을 할 경우에는 추월 금지 구간을 지나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는 곳까지 기다린 후 추월을 시도한다.



8. 고속도로 진입

- IC(인터체인지)라고 불리는 입구를 이용
- 일반도로는 파란색 이정표이지만, 인터체인지는 초록색으로 표시
- 렌터카 대여시 ETC 카드 대여를 했으면 ETC 전용차로 이용 (하이패스 개념)
- 통상 좌석이 주행차선, 우석이 추월차선 (우리나라 반대 개념)

9. 주차위반

- 일본은 차를 구입할 때도 주차할 곳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을만큼 주차에 대해 예민
- 주차위반에 대해서도 엄격하며, 만약 위반시 15000엔 ~ 18000엔 정도의 벌금 부과
- 만약 직접 처리하지 않고 렌터카 회사에 맡기면 25000엔 과금

10. 주유하기

- 레귤러 : 일반 휘발유(가솔린) / 하이오크 : 고급 휘발유 / 게이유 : 경유(디젤)



- 직원이 있는 주유소에서는 ‘레귤러 만땅데 오네가이 시마스’(일반 휘발유로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말한다.
- 셀프 주유소인 경우 선불로 요금을 넣고 화면에서 레귤러(빨간색) 선택 후 빨간색 노즐 손잡이를 이용해 주유 (레귤러 : 빨간색 / 하이오크 : 노란색 / 게이유 : 초록색)

11. 기타

- 뒷좌석도 안전벨트 착용 의무
- 만 6세 미만 자녀는 어린이 전용 카시트 착용 의무

일본에서
운전하는거
어렵지 않아요~

전세계 46,000지역의
783개의 렌터카 업체
24시간
실시간 가격비교!

렌터카 가격 비교

국가

일본 ▼

도시

오사카(오사카) Osaka (Osaka) ▼

장소

오사카(오사카) Osaka (Osaka) (전지역) ▼

대여/반납 장소가 동일함

차량인도 날짜:

시간:

▼

▼

10:00 ▼

반납하기 날짜:

시간:

▼

▼

10:00 ▼

운전자 연령이 25-70 세 인 경우

검색

최상가 보장





동행서비스

동행서비스(바로가기)란 여행일정과 여행국가, 지역, 로밍 휴대폰, 한국 비상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여행지의 치안, 자연재해 등의 안전정보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외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만약 현지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객의 안전을 조금 더 빨리 확인 가능하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 비상연락처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

자동출입국 심사는 내국인이 해외 출입국할 때 심사관의 대면 심사를 자동출입국 심사대로 통해 짧은 시간에 출입국 심사를 마치는 제도를 말한다. 별다른 서류없이 여권과 얼굴과 지문만 있으면 공항에서 등록이 가능하니, 처음 등록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20~30분 일찍 나가서 등록을 하면 두 고두고 편하다.

알고 계십니까?

해외에서 긴급상황 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해외여행 안전은!
영사콜센터

유료전화 +822-3210-0404(국내·외 겸용)
무료전화 +800-2100-0404(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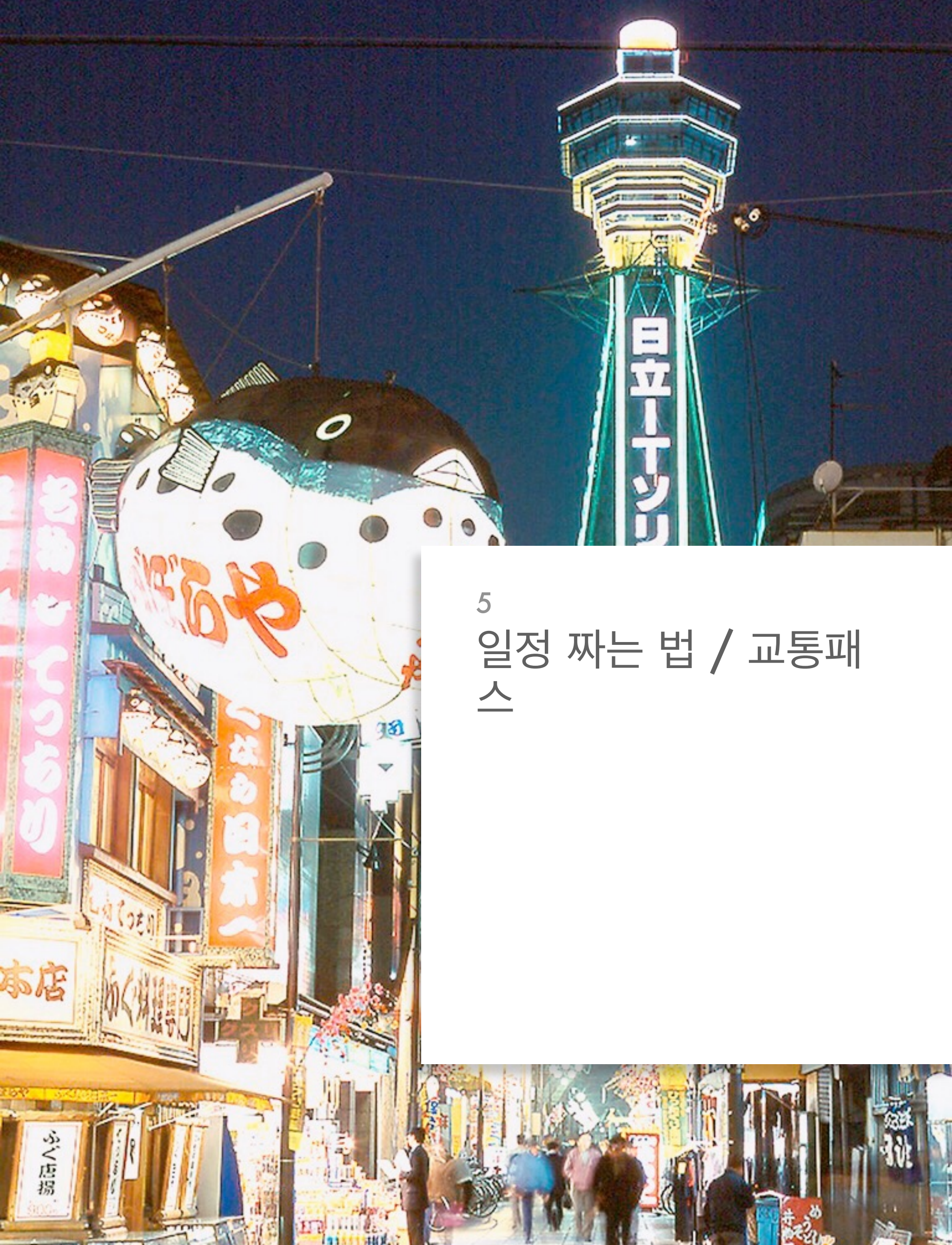
(이미지 : 영사관 콜센터 캡처)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외여행 시 현지 공항에 도착하면 외교부에서 문자가 하나 온다. 대부분은 막연히 ‘별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막상 위급 상황이 발생해 당황하면 문자 받은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긴급 상황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문자 받은 번호로 연락하도록 하자.

[영사콜 센터 홈페이지](#)



5
일정 짜는 법 / 교통패
스



일정준비

오사카 여행 가기 위해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면 그다음은 일정을 어떻게 짜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이것저것 찾아 보면 많은 패스의 종류가 나온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패스'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투어캐스트 영상'과 같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사카 정석코스를 통해 많은 패스 종류 중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투어캐스트에서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행이라는 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먹고 즐기는 것이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기 힘들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야 한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자신만의 매력 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아래 추천 코스 이외에도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히메지 등에는 수많은 관광지가 많으나 ‘투어캐스트 영상’와 지금 보고 있는 e-book을 충분히 보신 분이라면 그 많은 관광지를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쉽게 자신만의 일정을 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된다.



투어캐스트 영상

교통패스 내용을 정리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유튜브로 이동합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오전	공항 도착	교토 전일	오사카 시내 전일	유니버설	나라
오후	고베				공항 출발

오사카 정석코스

• 아침출발-저녁도착 4박 5일 일정

1일차 : 한국출발 - 고베

2일차 : 교토 하루 일정

3일차 : 오사카 하루 일정

4일차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5일차 : 나라 - 한국도착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앞의 일정을 정석코스라고 하는 이유는 5일 동안의 주어진 시간 내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을 교통 패스에 맞게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2,3,4 일차는 현지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가능하며, 한국에서 오전 출발 / 오사카에서 오후 출발을 한다는 가정이다.)

고베는 하루 일정을 잡기 보다는 일본 3대 야경인 고베 야경을 보러 가기 때문에 오후 반나절 일정이면 충분하고, 나라 같은 경우도 사슴공원과 동대사를 방문하는 정도의 일정이라면 마지막 날 오전 반나절 일정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각각 첫째날 오후, 마지막날 오전 일정으로 넣었고, 교토는 워낙 큰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려면 3일정도 여유있게 봐야 하지만 이것만은 꼭 봐야 하는 관광지만 뽑아서 하루 일정으로 묶었다.

그리고 오사카 주유패스 1일권으로 본전 이상을 뽑는 오사카 하루 일정과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하, USJ)을 비싼 티켓 주고 갔으니 하루 일정으로 넣는 4박 5일 일정으로 교토, 오사카 시내, USJ를 모두 다녀올 수 있는 꼭 찬 여행 일정을 만들 수 있다.

이 일정으로 필요한 패스는 결론적으로 1인당 **간사이 쓰루패스 3일권, 오사카 주유패스 1일권**과 **USJ 티켓**이 각각 한 장씩 필요하다. (자세한 설명은 뒷장에 패스와 같이 설명)

만약 4박 5일이 아니라 3박 4일 일정으로 USJ를 안 가는 경우 그 하루를 제외한 **간사이 쓰루패스 3일권, 오사카 주유패스 1일권**을 구매하면 된다.

또 다른 예로는 일본 유적지나 절 같은 곳에는 관심이 없어 교토를 가지않을 계획이라면 **간사이 쓰루패스 2일권, 오사카 주유패스 1일권**(또는 일정에 따라 **간사이 쓰루패스 3일권**), **USJ 티켓**을 구매되는 식이다.

아직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사카 여행 일정 쉽게 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정 쉽게 짜는 법

오사카 여행 일정을 준비할 때 너무 많은 종류의 교통 패스가 있어 그 패스를 각각 이해하기 전에는 일정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하나만 기억해두자!

바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이하, USJ)를 갈지 안 갈지를 정하는 것.

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로 잠깐 가기 위해 비싼 티켓을 구매하진 않을 것이다. 거의 100% 사람들이 오전부터 저

년까지 USJ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USJ 티켓을 구매할 것이다. 이때 USJ 는 간사이 쓰루패스로는 이동이 되지 않는 지역에 있으므로 USJ를 가는 하루는 교통패스가 따로 필요 없는 하루. 그러므로 USJ가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와 코스에 따라 패스를 구매하면 된다. **이건 완전 꿀 팁!**

그럼 다시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4박 5일 일정으로 USJ를 가지않는 경우를 보면 이전의 정석코스에서 하루가 빠지는 일정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 하루를 어디로 대체할 것인지 정한 후 거기에 맞는 패스를 구매하면 된다.

예를 들어 USJ 대신 오사카를 이틀 동안 볼 경우 오사카 주유패스 1일권 대신 2일권 구매해 조금 더 여유롭게 오사카 시내 관광이 가능하다. 만약 교토를 이틀 본다면 기존의 구매한 간사이 쓰루패스 3일권과 같이 한큐 투어리스트 패스 1일권 + 교토 버스 1일 승차권을 구매해 USJ 일정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USJ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패스에 대해 각각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다음 섹션에서 패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USJ 와 오사카 주유패스와의 궁합!

오사카 주유패스로 오사카 시내를 하루 일정, 그 다음 날(또는 그 전날)에 USJ를 간다면 오사카 주유패스 1일권 보다 2일권이 나올 수 있다.

주유패스 1일권과 2일권의 가격 차이는 700엔 차이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특히 USJ를 갔다 나오는 길에 오사카 주유패스로 캡틴라인 배를 무료 승선이 가능해 바로 텐포잔으로 넘어가 텐포잔 관람차를 탈 수 있다. 또한 공중정원 전망대 등을 오는길에 가거나 할 수 있어 주유패스 1일권 구매 했을 때 보다 시내 관광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가능하다.

하지만 주유패스 1일권과 2일권의 이용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꼭! 확인 후 선택하도록 하자.

(단, 오사카 주유패스 2일권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틀 연속의 일정이 되어야 한다.)

[주유패스 1일권 이용구간](#)

[주유패스 2일권 이용구간](#)

[캡틴라인 홈페이지\(영어\)](#)



교통패스

오사카 여행 일정 짜는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교통패스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일정을 짜고 거기에 패스를 맞추려고 하는건데, 그럼 패스를 적용시키면서 일정을 다시 짜야 되므로 어떤 패스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일정을 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오사카에는 많은 교통 패스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패스가 ‘정석코스로 보는 오사카’ 편에서 언급한 **간사이 쓰루패스**와 **오사카 주유패스**일 것이다. 이 두 패스에 대한 개념만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나머지 패스들은 한 번에 이해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 **간사이 쓰루패스 (Kansai Thru Pass)**

1. 이용지역

- 간사이 지역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히메지 등)

2. 탑승 가능 노선

- JR선을 제외한 전철(지하철), 버스

3. 종류 및 가격

- 2일권(¥4,000) / 3일권(¥5,200)
- 어린이(만 6세~11세)까지는 각각 ¥2,000, ¥2,600

4. 특징

- 비연속 사용 가능

5. 유의점

- 그 날의 첫차부터 막차까지가 하루로 간주됨.
- 오후 3시부터 사용했으면 그 날 밤까지 하루 사용

6. 비고

- 간사이 공항 - 오사카 시내(난바) 구간 난카이 공항 특급 이용 가능 (단, 라피도 특급 이용 시 추가금 발생)
- 관광지, 음식점, 각종 시설의 할인, 기념품 제공 혜택

[홈페이지](#)

• **오사카 주유패스 (Osaka Amazing Pass)**

1. 이용지역

- 오사카 시내

2. 탑승 가능 노선

- JR선을 제외한 전철(지하철), 버스

3. 종류 및 가격

- 1일권 (¥2,300) / 2일권 (¥3,000)

4. 특징

- 오사카 시내 28곳의 관광지 무료입장 (오사카 성 등)

5. 유의점

- 2일권은 연속 사용만 가능
- 1일권과 2일권 이용구간이 다름

6. 비고

- 주유패스를 사용한 날짜에 한해 바코드 찍힌 패스 제시 또는 해당 시설의 쿠폰과 같이 제시해야 무료입장 가능

어린이용은 별도로 없음

- 그 날의 첫차부터 막차까지가 하루로 간주됨
- 난카이/공항 확장판, 킨테츠 확장판, 한신 확장판, 한큐 확장판의 주유패스 확장판이 있으며 사용한 날짜에 한해 해당 노선 이용 가능하며, 현지에서만 구매 가능

[홈페이지](#)

• 간사이 쓰루패스, 오사카 주유패스 무조건 사야하나?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패스를 구매하는 것이 100%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4박 5일 일정이지만 오사카 시내에서 쇼핑을 주로 하고, 하루 정도만 교토를 갔다 올 생각이라면 앞서 말한 패스 대신 한큐 투어 리스트 패스 + 교토 버스 1일 승차권을 구매를 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 이렇듯 전체적인 일정에 따라 패스 구매는 달라진다. 개념이 어렵지만, 그래도 패스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성이라 생각이 된다.

노선, 구간과 상관없이 한번 이용한 날짜에는 막차까지 별도의 티켓 구매를 하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두 패스를 추천하며,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정도 가는 일정으로 봤을 때 패스 샀을 때와 안 샀을 때의 교통비가 1인당 1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1만 원 차이로 시간 들여 번거롭게 매번 지하철 표를 살 것인가? 아니면 패스를 사서 편하게 다닐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 **한큐 투어리스트 패스**

1. 탑승 가능 노선

- 한큐 교토, 고베, 다카리즈카 선 탑승 가능
- [노선도 보기 \(pdf파일\)](#)

2. 종류 및 가격

- 1일권 ¥700 / 2일권 ¥1,200

3. 특징

- 2일권 비연속 사용 가능
- 한큐 투어리스트 패스로 고베를 갈 경우 한큐 산노미야 역까지만 이동 가능

4. 비교 : 리무진 버스 편도 티켓과 같이 구매 가능

- 1일권 + 리무진 버스 승차권(편도) = ¥2,000
- 2일권 + 리무진 버스 승차권(편도) = ¥2,500

[관련링크](#)

• 한신 투어리스트 패스

1. 탑승 가능 노선

- 한신 고베선, 남바선, 고베 고속선 탑승 가능

2. 종류 및 가격

- 1일권 ¥500

3. 특징

- 난바에서 고베 산노미야로 이동 가능
- 하버랜드 & 모자이크 관광 후 고베 고소쿠역 또는 니시모토마치 역에서 고베 고속선을 타고 한신 산노미야 역까지 이동이 가능하므로 고베 갈 때는 한큐 투어리스트 패스보다 더 유용

[관련링크](#)

• 간사이 쓰루패스 vs 투어리스트 패스

간사이 쓰루패스와 투어리스트 패스는 주유패스와 달리 교통만 이용이 가능한 패스이지만 그 활용도면에서는 간사이 쓰루패스 쪽이 크다. 한 예로 한큐 투어리스트 패스는 한큐선만 이용이 가능해 교토 내에 있는 버스를 탈 경우에는 교토 버스 1일 승차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되며, 아라시야마 라덴 열차, 가라스마 선 같은 교토 내의 다른 노선은 이용할 수 없으며 후시미이나리 신사를 갈 때도 이동의 제약이 발생이 된다. 그러므로 한큐 / 한신 투어리스트 구매 시에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구매를 해야 한다.

그럼 간단한 예시를 통해 비교해보자.

< 가정 : 2박 3일 일정으로 난바역 주변 호텔 >

- 1일, 3일 : 난바역 주변, 2일 : 교토 하루 일정

< 한큐투어 리스트 패스 구매시 >

- 공항 - 난바 편도 920엔 / 왕복 1,840엔
- 한큐투어리스트 패스 1일권 700엔 + 교토 버스 1일 승차권 500엔

- 난바에서 우메다 역까지 편도 240엔 / 왕복 480엔
- 합 3,520엔

간사이 쓰루패스 3일권 5,200엔과 1,680엔 차이가 난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정이 있다, 1, 3일차 공항-난바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교통 이용안하고, 2일차 때도 난바 - 우메다 구간만 이용한다는 가정이다.

만약 여기서 고베를 가거나 나라를 가는 추가로 일정이라면? 아니면 오사카 시내에서 전철을 몇 번 더 타고 관광할 예정이라면?

당연히 쓰루패스가 이득이며, 그렇기 때문에 투어캐스트 e-book의 정석코스에는 쓰루패스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다.

• 게이한 패스

1. 탑승 가능 노선

- 게이한 선 탑승 가능

2. 종류 및 가격

- 교토, 오사카 1일, 2일 승차권 각각 700엔, 1000엔
- 교토 1일 관광 승차권 500엔

3. 특징

- 요도야바시 역에서 게이한 선을 타고 교토로 이동 가능

[홈페이지](#)

• **한큐 투어리스트 패스 vs 게이한 패스**

흔히 교토를 갈 때는 한큐 투어리스트 패스를 많이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후시미이나리 신사는 게이한 선에 있으므로 한큐선만 탈 수 있는 한큐 투어리스트 패스로는 이동이 되지 않고, 교토 역에서 버스 타고 이동이 가능하다. (30분마다 한대) 그러므로 만약 아라시야마를 가지 않고, 후시미이나리 신사, 은각사, 청수사, 산넨자카, 니넨자카, 기온 정도의 일정 이라면 게이한 패스가 한큐 투어리스트보다 좀 더 유용하다.

• 히메지 투어리스트 패스

1. 탑승 가능노선

- 편도 승차권 : 간사이 공항에서 난바역 가는 난카이 급행 편도권
- 1일 프리 승차권 : 난바역 ~ 아마가사키 ~ 산요 히메지 역 왕복권

2. 종류 및 가격

- 1일권 : 2000엔

3. 특징

- 1일 프리 승차권은 편도 승차권 사용 후 8일 이내 아무 날짜 하루 사용 가능

[홈페이지](#)

• 아리마 온천 다이코노유 패키지 티켓

1. 탑승 가능노선

- 한큐선 또는 한신선 + 고베 전철 + 아리마 온천 다이코노유 입욕권

2. 종류 및 가격

- 한큐전철 + 다이코노유 입장권 : 2770엔
- 한신전철 + 다이코노유 입장권 : 2570엔

3. 특징

- 다이코노유 입장권만 평일 2400엔, 주말 2600엔 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패스

• 오사카 1일 승차권 (Osaka Visitors' Ticket)

1. 탑승 가능 지역 & 노선

- 오사카 시내에 있는 JR 선을 제외한 오사카 시영 지하철, 트램(노면전차), 버스

2. 종류 및 가격

- 1일권 (¥600)

3. 특징

- 일본현지에서 구매 불가

4. 비고

- 오사카 시내 위주로 쇼핑할 경우 유용
- 약 32 곳의 할인 혜택
- 하루에 관광지 3군데 이상 입장할 경우는 오사카 주 유패스 1일권을 추천

[관련링크](#)

• **요코소 오사카 킷푸 (Yokoso Osaka Ticket)**

1. 탑승 가능 지역 & 노선

- 오사카 1일 승차권 + 간사이 공항에서 난바 역가는 라피도 특급 열차 편도 승차권

2. 가격 : ¥1,500

3. 비고

- 시내에서 공항가는 라피도 특급 열차 이용 불가
- 라피도 특급 열차는 교환 당일만 사용가능
- 오사카 1일 승차권은 교환 당일 또는 다음날 중 하루 이용 가능

[관련링크](#)

• 오사카 카이유칸 킷푸(Osaka Kaiyukan Ticket)

카이유칸 수족관(해유관)입장료와 노선별 연계하여 카이유칸 입장료(¥2,300) 및 해당 노선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패스

1. 종류 및 가격

- 카이유칸 킷푸 오사카 시내판(¥2,550) : 카이유칸 입장권 및 오사카 1일 승차권 노선
- 카이유칸 킷푸 난카이판(¥3,010) : 카이유칸 입장권 + 난카이선 공항 특급(구간 상관없음) + 오사카 1일 승차권 노선
- 이외 종류는 아래 홈페이지 참고 바람

[관련링크](#)

• 이코카 패스 (ICOCA PASS)

1. 이용지역

- 간사이 공항, 오사카 시내, 교토, 나라, 고베, 히메지, 와카야마 등의 간사이 지역

2. 탑승 가능 노선

- 거의 모든 구간의 대중교통

3. 종류 및 가격

- ¥2,000 (보증금 ¥500 + 충전금액 ¥1,500)

4. 특징

- 우리나라 티머니 같은 개념의 교통카드식이며 대중교통 및 제휴된 매장(편의점 등), 자동판매기에서 물품 구매도 가능하다.

5. 유의점

- 대중교통 이용시 할인 불가
- 신칸센 이용불가

- JR선의 특급열차 이용시 별도의 특급권 구매
- 어린이용은 별도의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으로 구매가 가능

6. 비교

- 처음 구매시 충전된 금액은 ¥1,500이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충전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환불 시 보증금 ¥500과 수수료 ¥220을 제하고 돌려 받는다.
- 잔액이 ¥220엔 미만인 경우 보증금 ¥500만 돌려 받는다.

[이코카패스 사용방법 및 이용가능 지역 & 노선도\(pdf파일\)](#)

• 이코카 하루카 패스 (ICOCA & HARUKA)

1. 이용지역

- 간사이 공항, 오사카 시내, 교토, 나라, 고베, 히메지, 와카야마 등의 간사이 지역

2. 탑승 가능 노선

- 하루카 특급열차 + 이용지역의 거의 모든 구간의 대중교통

3. 특징

- 사전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다. (단, 공항행 편도권은 현지에서만 구매가능)
- 교토판은 교토역 - 사가 아라시야마역까지, 고베판은 신오사카 역에서 산노미야, 고베, 마이코 역까지, 나라 판은 텐노지역에서 나라 역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 이코카 패스를 별도로 소지한 경우 하루카 열차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 어린이 용은 따로 없다.

4. 종류 및 가격

이용지역	하루카 이용구간	편도		왕복	
		#	+ ICOCA	#	+ ICOCA
오사카	공항~텐노지	1100엔	3100엔	2200엔	4200엔
	공항~신오사카	1300엔	3300엔	2600엔	4600엔
교토	공항~교토	1600엔	3600엔	3200엔	5200엔
고베	공항~신오사카	1500엔	3500엔	3000엔	5000엔
나라	공항~텐노지	1400엔	3400엔	2800엔	4800엔

- #표시의 요금은 ICOCA패스 소지한 경우 하루카 요금

5. 유의점

- 개찰구를 나오면 재탑승이 불가능하다.
- 지정석과 그린석은 별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6. 비교

- 교토를 중심으로 관광을 한다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패스이며, [교토 버스 1일 승차권 또는 교토 관광 1, 2일 승차권](#)과 같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코카 하루카 패스 홈페이지](#)

• 일본에는 JR선이 있다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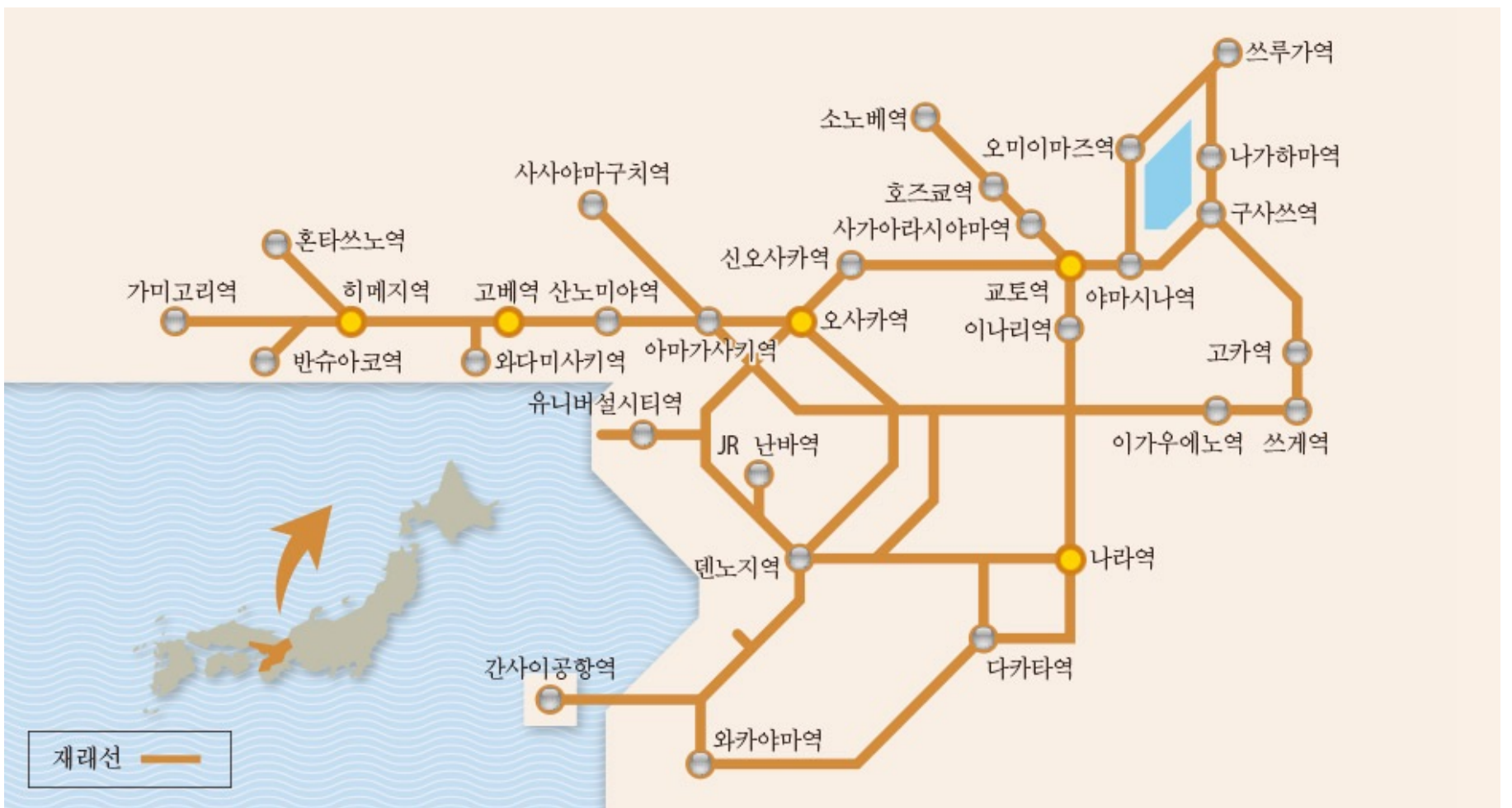
일본여행이 처음인 분들도 JR선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패스는 이런 JR선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철도(私有鐵道, 이하 사철)만 이용이 가능한 패스이며, 오사카 시내뿐만 아니라 교토, 고베, 나라, 히메지 등 JR선이 있다. 하지만 사철처럼 관광지 구석구석 역이 있는 게 아니므로 관광객한테는 활용 면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USJ를 갈 때는 반드시 JR선을 타고 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사철보다 JR선을 이용하는 게 이득이다. 예를 들어 오사카에서 교토를 갈 경우 사철인 한큐본선을 타고 우메다에서 교토 가와라마치 역까지 편도 약 45분 정도 걸리지만, 신오사카 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교토 역을 간다면 약 15분 만에 갈 수 있다. 또, 간사이 공항에서 간사이 쓰루패스로 교토를 간다면 최소 두 번 갈아타고 약 2시간 정도 걸리지만, JR 하루카 특급 열차를 타면 환승 없이 76분 만에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JR 간사이 패스 (JR Kansai Pass)

1. 이용 가능 노선

- 간사이 지역(공항,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히메지, 와카야마 등)의 JR선
- 간사이 공항 특급 하루카 자유석
- JR 서일본 기존선의 신쾌속, 쾌속, 보통 열차



이미지 : <http://www.westjr.co.jp/global/kr/ticket/pass/kansai/>

2. 종류 및 가격

유효기간	일본 국외 또는 인터넷 구입		현지구입	
	어른	어린이	어른	어린이
1일간	2200엔	1100엔	2300엔	1150엔
2일간	4300엔	2150엔	4500엔	2250엔
3일간	5300엔	2650엔	5500엔	2750엔
4일간	6300엔	3150엔	6500엔	3250엔

3. 특징

- 교환권을 현지 교환처에서 교환 후 사용
- 개시일부터 연속 사용만 가능
- 교환권 교환시 티켓 예약 가능

4. 비고

- 간사이 공항에서 교토 가는 하루카 특급열차 편도 요금 2,850엔으로 1일권 구매 후 하루카만 타도 650엔 이득
- 하루카 이외의 특급열차 이용시 추가금 발생
- 신칸센 이용 불가

[관령링크](#)

• JR 간사이 와이드 패스 (JR Kansai Wide Pass)

1. 이용 가능 노선

- JR간사이 패스 지역 + 오카야마, 구라시키, 시라하마, 기노사키 온천, 다카마쓰까지 이동 가능
- 산요 신칸센 (신오사카 - 오카야마) 자유석
- 특급열차 'HARUKA, KUROSHIO, THUNDERBIRD, KOUNOTORI, SUPER HAKUTO(교토⇔가미고리) 등' 자유석
- JR 서일본 기존선의 신쾌속, 쾌속, 보통 열차



이미지 : http://www.westjr.co.jp/global/kr/ticket/pass/kansai_wide/

2. 종류 및 가격

유효기간	일본 국외 또는 인터넷 구입		현지구입	
	어른	어린이	어른	어린이
5일간	8500엔	4250엔	9000엔	4500엔

3. 특징

- 교환권을 현지 교환처에서 교환 후 사용
- 개시일부터 연속 사용만 가능
- 교환권 교환시 티켓 예약 가능

4. 비고

- 오사카 여행이 처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관광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

[관련링크](#)

- 좀 더 많은 JR 웨스트 레일패스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관련링크](#)



6

정석코스 1일차



간사이 공항 도착

예전에는 오사카 시내에 있는 오사카 이타미 공항으로 갔었지만, 소음 등의 문제로 바다를 메워 만든 인공섬인 지금의 간사이 국제공항(KIX)을 만들었다. 대부분 비행기는 제 1 터미널로 입국을 하지만, 피치항공을 이용한다면 제 2 터미널로 도착을 하므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제 1 터미널로 이동 후 전철이용이 가능하다.

[간사이 공항 홈페이지](#)

• 오사카 시내로 이동

1. 난카이(南海)선 이용

(1) 공항특급 (Express)

- 난바 역까지 약 44분 소요 (편도 ¥920)
- 전철개념으로 좌석에 앉았을 경우 옆으로 이동
- 간사이 쓰루패스로 탑승 가능

평일/주말시간표

(2) 라피도 특급 (Rapid)

- 난바 역까지 약 38분 소요 (편도 ¥1,430, 4열 레귤러 시트)
- 열차 개념으로 좌석에 앉았을 경우 앞으로 이동
- 간사이 쓰루패스 소지 시 ¥510엔 추가 시 탑승 가능 (4열 레귤러 시트 기준)

(3) 보통열차 (普通)

- 난바 역까지 가는 모든 역에서 정차하므로 탑승하면 안 됨

[난카이선 홈페이지 \(열차 시간표 등\)](#)

2. JR선 이용

- 난바역까지 약 50~60분 소요 (1번 환승, 편도 ¥1,060)
- 간사이 공항에서 교토를 갈 때 JR 하루카 특급 열차를 타면 유용

[서일본 여객철도 홈페이지](#)

3. 리무진 버스

- 난바 OCAT(Osaka City Air Terminal)까지 약 50분 소요 (편도 ¥1,050)
- 우메다 역(오사카 역)까지 약 65분 소요 (편도 ¥1,550)
- 호텔이 우메다 역에 있는 경우 별도의 환승 없이 이동 가능

리무진 버스 홈페이지 (시간표, 정류장 등)

4. 택시

- 난바 역까지 주간 이용 시 중형차 14,000엔, 소형차 13,000엔 / 심야 시간 이용시 중형차 16,500엔, 소형차 15,500엔 정액 운임제 도입 (단, 도로세 별도)

• **간사이 쓰루패스 사용**

간사이 쓰루패스는 예전 우리나라 공중전화 카드처럼 생겼으며 이용 가능한 노선의 개찰구에서 패스를 통과시키면 다시 위로 다시 나오는 식(예전 우리나라 지하철 표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 간혹 교통카드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은 패스를 통과시켜 그냥 두고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불가하다. 다시 구매 해야 하므로 분실을 반드시 주의하자.

• 호텔에 짐 보관

짐이 많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고베 관광을 하고 싶은 분들은 역마다 설치된 코인락커(물품보관소)에 짐을 넣어두고, 바로 고베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호텔 위치를 먼저 정확히 알고 가야 밤에 덜 헤맬 수 있고, 코인락커에 짐 보관 시에는 몇백 엔이 들어가니 호텔을 먼저 찾아가는 걸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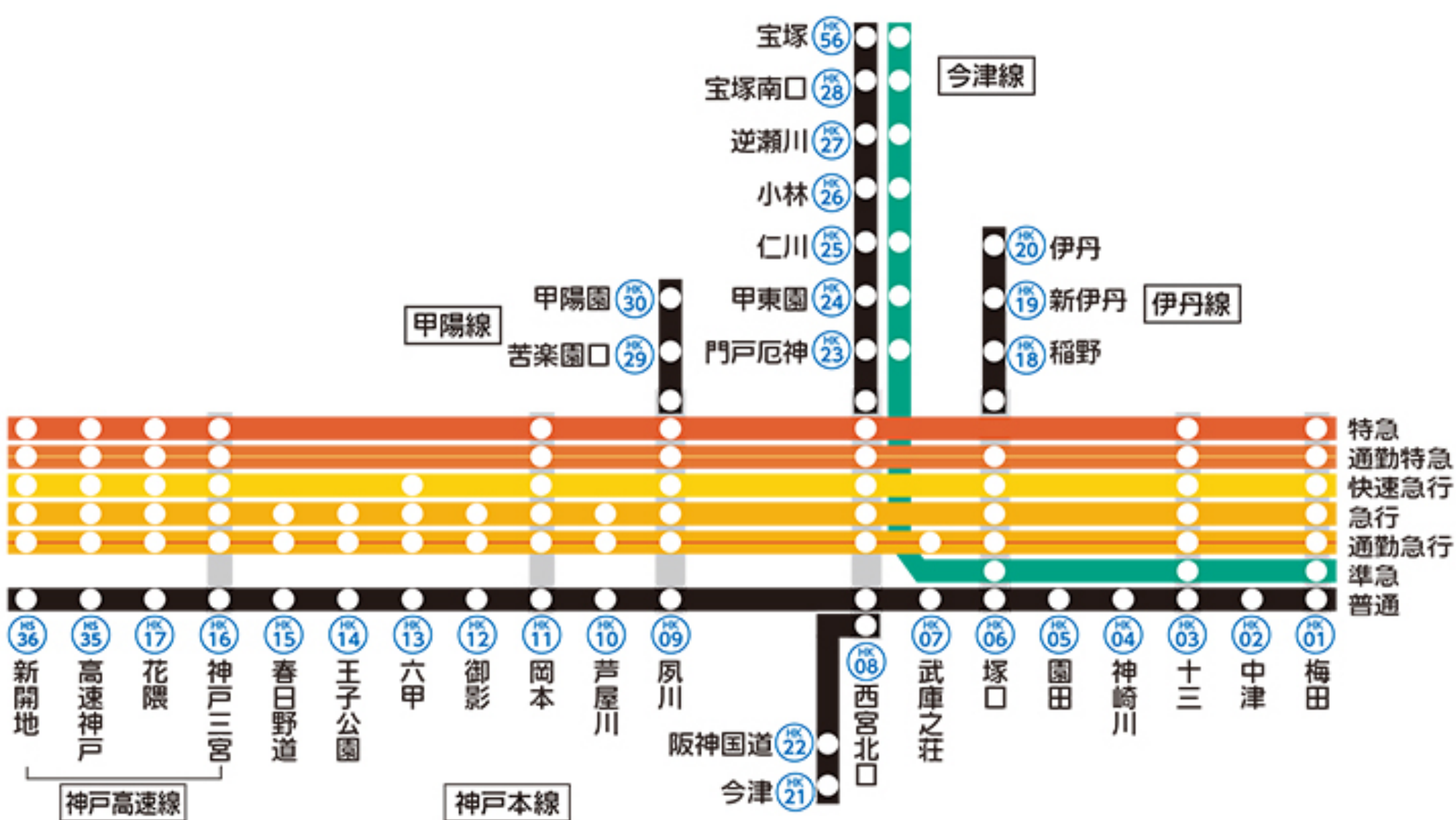
대부분의 호텔 체크인 시간은 오후 2~3시부터이며, 짐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체크인 시간 전에 도착했다면 무거운 짐만 컨시어지 데스크 (Concierge Desk)에 바우처 (숙박권) 제시 후 짐을 맡길 수 있거나 체크아웃 후에도 짐 보관할 수 있으니 짐 없이 편하게 여행을 다니고 싶다면 호텔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유용한 일본어

荷物を預けてもいいですか?

(니모쯔오 아즈게떼모 이-데쓰까?)

짐을 맡겨도 될까요?



<http://www.hankyu.co.jp/images/station/rosen.pdf>

오사카 전철 타는 법 • 전철 이용시 주의사항

일본 지하철역에 가면 위와 같은 노선도를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우리나라 1호선 지하철 노선도의 급행 노선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다.

맨 오른쪽 HK01 梅田 라고 적힌 곳이 우메다 역이고 HK16 神戸三宮 라고 적힌 곳이 고베 산노미야 역이다. 그리

고 맨 위 빨간색부터 아래로 특급(特急)-통근특급(通勤特急)-쾌속급행(快速急行)-급행(急行)-통근급행(通勤急行)-준급행(準急)이며 제일 아래 검은색 노선이 보통(普通)열차이다.

일단 목적지인 산노미야 역은 모든 열차가 다 정차를 하지만 만약 검은색의 보통열차를 탄다면 모든 역을 정차하며 이동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쾌속급행 이상의 열차를 타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특급이용 시 31분 소요)

만약 롯코산을 가기 위해 HK13 육갑(六甲)역이 아닌 롯코역은 특급, 통근특급은 정차하지 않으므로 쾌속급행을 타든지, HK11 岡本 (오카모토)역에서 환승을 하면 된다.

간사이 쓰루패스로는 위 노선 구분 없이 전부 이용이 가능하며, 쓰루패스가 없더라도 노선별 금액 차이는 없다.

• 열차 시간표 보는 방법

예를 통해 알아보자. 다음 이미지에서 처음 시간인 **0**의 왼쪽에 新이라고 적혀 있다. **■**는 열차의 종류를 말하며 한자는 방면(종점)을 나타내므로 시간표 아래쪽을 보면 新印이라고 적힌건 신카이치 방면이라는걸 알 수 있다. 따라

서 처음 **0**의 열차는 '18:00에 출발하는 신카이치가 방면인 특급열차'임을 알 수 있다.



種別

- 00** 특급
- 00** 통급특급
- 00** 쾌속급행
- 00** 급행
- 00** 통근급행
- 00** 보통

行先

- 新印** 신카이치 방면
- 高印** 고소쿠고베 방면
- 西印** 니시노미야키타구치
- 無印** 고베산노미야 방명

http://www.hankyu.co.jp/station/pdf/HK-01_ko_2_w.pdf

18	0	1	6	10	11	16	20	21	26	30	31	36	40	41	46	50	51	56
19	0	1	6	10	11	16	20	21	26	30	31	36	40	41	46	50	51	56
20	0	1	6	10	11	16	20	21	26	30	31	36	40	41	46	50	51	56
21	0	1	6	10	11	16	20	21	26	30	31	36	40	41	46	50	51	56
22	0	3	10	13	20	23	30	33	40	43	50	53						
23	0	3	10	14	20	23	30	37	45	49								
24	0	9	25															

時刻表の見方



種別

- 00** 特急
- 00** 通勤特急
- 00** 快速急行
- 00** 急行
- 00** 通勤急行
- 00** 普通

行先

- 新印** 新開地ゆき
- 高印** 高速神戸ゆき
- 西印** 西宮北口ゆき
- 無印** 神戸三宮ゆき

先着・連絡・車両案内など

- 印=塚口・西宮北口にはあとの通勤特急が先に到着します。
- ▼印=西宮北口で始発の特急・通勤特急に連絡します。
- ◆印=10両編成で運転します。いちばん前の車両には女性専用車両を設定しています。



고베로 이동

• 고베로 이동

일본 3대 야경의 한 지역으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고베는 일찍이 개항하여 서양 문물이 많이 유입되어 이국적인 곳이며, 1995년 고베 대지진이 났던 곳이기도 한다. 그 해 12월부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고베의 부흥과 재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매년 12월이 되면 루미나리에(축제)가 개최된다.

온천으로는 간사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며 일본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리마 온천 마을이 있으며, 히메지 성과 함께 하루 일정을 짜기도 한다.

• 간사이 공항에서 바로 고베로 가는 방법

오사카 시내를 거쳐 호텔에 들러 짐을 맡기고 고베 산노미야 역까지 간다면 약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짐이 많지 않고 여유롭게 고베를 관광하고 싶은 분들에게 고속선인 '베이셔틀(Bay Shuttle)' 또는 리무진 버스를 추천한다.

< 베이셔틀 >

- 이동노선 : 간사이 공항 부두 → 고베 공항 터미널
- 이동시간 : 31분 소요
- 요금 : 편도 ¥1,850
- 비고 : 간사이 쓰루패스 사용 불가

[베이셔틀 홈페이지](#)



고베 추천일정

[고베 관광 공식 사이트](#)

• 산노미야(三宮)역

고베 여행은 산노미야 역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듯이(?) 산노미야 역으로 북쪽으로는 이진칸거리, 토어로드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차이나타운, 고베 포트타워, 하버랜드 등이 있다. 야경을 보러 고베를 가기 때문에 북쪽 지역을

먼저 관광하는 게 좋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은 남쪽 지역 관광만으로도 충분히 고베의 매력을 볼 수 있다.

고베시에서 운영하는 고베 시티루프 버스가 있으나 오후 5시 30분 정도면 막차가 끊겨 활용도가 다소 낮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산노미야 역에서 이진칸거리 가는 길이 오르막이므로 한 번쯤은 이용할 만하다. (1회 탑승 시 ¥260)

[고베 시티루프 버스 홈페이지 \(일어, 노선도, 시간표 등\)](#)

< 이동방법 >

- 난바 역에서는 한신 난바 선을 타고 아мага사키 역에서 한신 선으로 환승 후 한신 산노미야 역으로 이동
- 우메다 역에서는 한신 우메다 역에서 한신 본선 ([평일 시간표](#)) ([주말시간표](#)) 을 타고 [한신 산노미야 역](#)으로, 한큐우메다 역에서는 한큐 고베 본선 ([평일시간표](#)) ([주말시간표](#)) 을 타고 [한큐 산노미야 역](#)으로 이동
- 우메다 역은 한신/한큐/니시/히가시 역이 다 연결된 큰 역을 지칭하며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노선이기 때문에 간사이 쓰루패스가 없는 경우 환승 시 별도의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키타노이진칸(北野異人館) 거리**

키타노이진칸 거리는 고베항 개항 후 서양 무역상인들이 살던 동네를 말한다. 고국을 떠난 외국인들이 바다가 보이는 높은 언덕에 저택을 짓고, 고향을 향수를 달랬던 데서 유래가 되었다. (입장료 있음)

[키타노이진칸 홈페이지](#)



< 이동방법 >

- 산노미야 역 동 출구 8번 (東出口8)에서 약 15~20분 정도 걸리나 언덕길이라 도보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생각만 해도 싫다. 이때 산노미야 역에서 고베 시티루프 버스를 타고 키타노이진칸(北野異人館) 정류장 하차 후 [이진칸 거리](#)를 관광하는 것을 추천한다.
- 시티루프 버스는 간사이 쓰루패스 사용 불가, 1회 탑승 시 260엔

• 토어로드 (Tor Road)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거리인 토어로드는 개항시대 외국인 이 살 때 살던 주거지(키타노이진칸)과 직장이 있던 거류지(산노미야 역)를 잇는 외국인들의 출근길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가로수길 같은 거리로 빈티지스러운 상점들이 많아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곳이다. 이진칸거리에

서 난킨마치를 거쳐 내려가다보면 특히 여성들이 좋아할 아이템들을 구경할 곳이 많다.

[토어로드 홈페이지](#)

< 이동방법 >

- [토어로드](#)는 이진칸 거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

• 난킨마치 (南京町)

일본에는 3대 차이나타운으로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고베 차이나타운이 있다. 걷다 보면 마치 중국으로 여행 온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 정도로 우리나라 차이나타운보다는 좀 더 중국풍을 느낄 수 있다. 난킨마치는 부타망(豚まん)이라는 돼지고기만두가 유명하다.

[난킨마치 홈페이지](#)

< 이동방법 >

- [난킨마치](#)는 토어로드의 끝 지점인 규쿄류치 다이마루 마에(旧居留地大丸前)역에서 약 5분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다.
- **고베 포트타워 (神戸ポートタワー)**

고베 포트타워는 높이 108m의 북 모양을 한 붉은색 타워는 세계 최초의 파이프 구조로 만들어진 고베의 상징이다. 고베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으며, 20분에 360도 회전하는 커피숍이 있다.

[고베 포트타워 홈페이지](#)

< 이동방법 >

- [고베 포트타워](#)는 난킨마치에서 도보로 북서쪽으로 도보 12분
- 입장시간
3월 ~ 11월 : 오전 9시 ~ 밤 9시 (최종 입장 밤 8시 30분)
12월 ~ 2월 : 오전 9시 ~ 저녁 7시 (최종 입장 저녁 6시 30분)
- 휴관일 : 연중 무휴
- 입장료 : 고등학생 이상 성인 ¥700 / 초중학생 ¥300



• 하버랜드 & 모자이크

하버랜드는 바다를 따라 조성된 유원지와 오락시설이 있는 지역의 이름이고, 이곳에는 쇼핑몰인 모자이크가 있다. 또한 대관람차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는 곳이다.

도쿄의 오다이바 같이 연인들이 야경을 즐기는 데이트 코스로 모자이크에

서 보는 고베 포트타워와 메리켄파크 호텔의 야경은 일품이다.

[고베 하버랜드 홈페이지](#)

<이동방법 >

- [하버랜드](#)는 고베 포트타워에서 도보 8분

< 고베 루미나리에 (神戸ルミナリエ) >

1995년 1월 발생한 고베 대지진의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고베의 부흥과 재생을 기원’을 위해 그해 12월부터 매년 루미나리에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열흘 정도의 짧은 일정으로 일부러 그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보기 힘든 광경이다.

[고베 루미나리에 홈페이지](#)

- 위치 : 고베 시영 지하철인 카이간센(海岸線) [큐쿄류치 다이마루마에\(旧居留地大丸前\)](#)역에서 [산노미야·하나도케이마에\(三宮·花時計前\)](#)역 사이 거리

• 오사카로 이동

만약 간사이 쓰루패스가 없고, 한신 또는 한큐 투어리스트 패스를 구매했다면 산노미야 역까지 도보(약 30분)로 가거나 고베 시영지하철을 타고 이동 시에는 별도의 요금(¥210)을 지급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만능패스인 간사이 쓰루패스가 있으면 이런 걱정이 없으므로 활용도가 높은 것이다.

< 이동방법 >

- 하버랜드 뒤쪽에 있는 [하버랜드\(ハーバーランド\)](#)역에서 고베 시영 지하철인 카이간센(海岸線)을 타고 [산노미야·하나도케이마에\(三宮·花時計前\)](#)역으로 이동
- 연결되어 있는 한신 산노미야 또는 한큐 산노미야 역에서 한신선 [\(평일시간표\)](#) [\(주말시간표\)](#) 또는 한큐선 [\(평일시간표\)](#) [\(주말시간표\)](#)을 타고 우메다 역으로 이동

• 오사카 시내 관광은 언제?

정석 코스 일정을 보면 오사카의 번화가인 도톤보리 & 신사이바시는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

관광지는 18시 전후로 영업이 끝나기 때문에 관광지 구경을 한 후 오사카에 다시 와도 20시 전후 정도. 이때 난바, 신사이바시를 둘러보면 된다.

- 에비스바시(戎橋)라는 도톤보리(道頓堀)는 동쪽으로 약 450m, 신사이바시스지(心齋橋筋)는 북쪽으로 약 650m

물론, 쇼핑 위주의 시내 관광을 하시는 분이라면 오사카 시내 구경 비중이 커야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굳이 시간을 내지 않아도 도톤보리, 신사이바시는 오가며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소.

하지만 오사카가 아무리 일본의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밤 10시가 되면 매장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호텔로 가서 쉬는 걸 권유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관광객이 한 곳의 관광지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택시비가 상당히 비싸 술을 마시다 막차를 놓치면 밤을 새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밤 10시가 시작(?)인 문화는 전 세계에 유일하다.

에비스바시는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스지를 잇는 다리로 일명 난파(ナンパ) 다리라고 한다. 난파는 헌팅의 일본어로 이 다리에서 헌팅을 당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은 창피스러움을 느낀다는 설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트 클럽 웨이터가 부킹을 해주지 않는 기분이랄까?

• 호텔 체크인 (Check-In)

오후에 체크인을 못 하고 짐만 맡겼으면 짐을 찾고, 바우처(숙박권)와 여권을 제시하여 체크인한다.

- 일본 법으로 외국인이 투숙할 경우 여권 사본을 호텔에서 소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권을 요구한다.
- 만약 조식 포함으로 3박 예약했으면 1인당 조식권 3장을 한 번에 주거나, 매일 1장씩 주기도 한다. (직원의 실수로 1장만 주는 경우가 있으니 후자인 경우 확인 필요)
- 조식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식권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직원의 실수인지, 다음날



이미지 : <http://www.hno.co.jp>

식당에서 방 번호와 이름을 알려주고 식사를 하면 되는지를 확인한다. (예, 1204호인 경우 ‘원,투,제로,포’ 라고 하면 ok)

- 식당 위치와 영업시간 확인하는 센스!
- 체크아웃 시간 확인(우리나라 그곳처럼 12시가 아니라 보통 10~11시 체크아웃을 해야 하며 레이트 체크아웃(Late Check-Out)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미니바에 있는 음료를 마실 경우는 체크아웃할 때 지급을 하여야 한다(호텔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일본 호텔 객실 화장실은 물은 마실 수 있으며, 복도에 정수기가 있거나 얼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기도 하다(정수기와 얼음 받는 곳은 모든 층에 다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호텔을 연속으로 숙박할 경우 호텔 대부분은 객실 내 청소를 매일 해주며, 사용한 수건 등도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기 전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좋다 (특히 귀중품). 만약 청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DO NOT DISTURB(방해금지)'이라는 풋말을 문고리에 걸면 된다.
- 다음 날에도 숙박하는 경우에는 방 열쇠는 프런트에 맡기고 외출해도 좋다(분실 시 열쇠비 부담)
- 일본 호텔 숙박료에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팁(Tip)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어글리 코리안(Ugly Korean)’이 되지 않기**
 - 객실 내에서 크게 떠들지 않는다. (은근 방음 안 됨)
 - 일회용 어메니티는 필요한 경우 가지고 나와도 되지만, 교환하면서 쓰는 가운, 수건 등은 챙기지 말자.
 -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부자리를 적당히 정리하고 체크아웃하자.
 - 객실 내 기물파손 시에는 반드시 경비를 지급하고 체크아웃하자(한국 여행사로 연락옴)
 - 기타 등등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뷰티풀 코리안 (Beautiful Korean)**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보자.



2편 받는 방법

투어캐스트 오사카 2편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투어캐스트 오사카 2편 미리보기 >

• 오후출발 / 오전리턴 4박 5일 일정

정석코스와 달리 오후출발 / 오전리턴으로 4박 5일 일정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주요 지역인 교토 하루 전일, 오사카 하루 전일, 나라 반나절, 고베 반나절 일정이 나온다.(순서 상관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오전		교토 전일	오사카 시내 전일	나라	공항 출발
오후	공항 도착			고베	
	라피트 특급 왕복권	한큐 or 게이한 주유1일권 + 교토 1일 버스	주유1일권	한신패스	라피트 특급 왕복권

- 남바 - 공항구간 : 라피트 특급 열차 왕복권 (1,5일차)
- 교토 : 한큐 투어리스트(또는 게이한 패스) + 교토 1일 버스 승차권

페이스북에서 투어캐스트를 검색하세요 60

city.kyoto.lg.jp (이미지)



니조조 경내의 모습

< 이동방법 >

금각사 관람 후 금각사 앞에 있는 [킨카쿠지마에\(金閣寺前\)정류장](#) (오른쪽 이미지의 2번)에서 12번 버스를 타거나, 다시 [킨카쿠지마치\(金閣寺道\) 정류장](#) (오른쪽 1번) 으로 내려와 12번, 101번 버스를 타고 [니조조마에\(二条城前\)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이동

city.kyoto.lg.jp (이미지)



페이스북에서 투어캐스트를 검색하세요 13

• 교토에서 버스 탑승 방법

간사이 쓰루패스는 기본적으로 JR선을 제외한 전철, 트램, 버스를 기간 내에 무제한으로 탑승 가능하며, 교토 내의 버스도 당연히 탑승 가능하다. 일본 시내버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뒤로 타서 앞으로 내리며, 패스 소지 시에는 내릴 때 버스 기사 옆에 있는 정산기 투입구에 넣고 다시 나오면 배서 내리면 된다.

- 내릴 때 버스가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 버스가 정차 후 투입구에 패스를 넣어야 들어간다.
- 패스가 없으면 1회 탑승 시 ¥230이며 환승 시에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간사이 쓰루패스가 없는 경우 교토 1일 버스 승차권(¥500)을 구매하는 게 이득이다.

japanrailpass.com (이미지)



아래 녹색부분에 패스를 넣으면 위로 올라온다.

페이스북에서 투어캐스트를 검색하세요 11



4일차 - USJ

호텔조식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 난바, 신사이바시

패스 사용 없음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미국 유명영화를 주제로 한 영화 테마파크로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공원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 가지 예로, 스파이더맨 어트랙션은 3D 안경을 쓰고 움직이는 기구를 타는데, 스파이더맨이 악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영상이 나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홈페이지](#)

페이스북에서 투어캐스트를 검색하세요 45